

전조등·보조범퍼 등 車튜닝 자유로워진다

국토부, 승인·검사 면제 대상 27건 추가

전조등, 무시동 에어컨, 소음방지장치 등 일부 자동차 튜닝이 승인·검사 없이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8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하나다.

그동안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라 승인·검사를 받지 않는 튜닝 항목은 59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7건이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표적 사례가 전조등으로, 이날부터 제조사의 자기인증을 거친 전조등의 경우 자유롭게 바꿔 달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 전조등은 튜닝 승인 대상이었지만, 이제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구형 모델 자동차에 신형 페이스리프트(부분 개조) 모델의 전조등을 별도 승인이나 검사 없이 달 수 있다는 뜻이다.

주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많이 부착하는 보조 범퍼, 속칭 '캥거루 범퍼'도 튜닝 과정에서 승인이 필요없다. 다만 재질이 플라스틱일 경우에만 면제이고, 철제 캥거루 범퍼는 여전히 승인을 거

쳐야 한다.

루프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스키 캐리어 등 자동차에 짐을 더 실을 때 필요한 보조 장치도 상당수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높이 등 일정 규격을 벗어나면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규격 차이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승하차용 보조 발판의 경우 지금까지 '너비 30~40mm' 한도에서 허용됐지만, 이제 '50mm'만 넘지 않으면 승인 없이 부착할 수 있다.

설치기준 규제도 완화됐다.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차량 상부 부착되는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트탑바 이저, 컨버터블탑용롤바,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 등 12건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 사례 27건은 승인·검사가 면제된다"며 "연간 승인 건수 대비 12%에 해당하는 2만여건의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구형 벤츠도 디지털 서비스 받는다

벤츠코리아, 스마트폰 연동 서비스 차량 정보·주행·기록·주차 위치 등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메르세데스 미 디지털 어시스턴트(Mercedes me Digital Assistant)'를 출시했다.

메르세데스 미 디지털 어시스턴트는 가로·세로 5cm의 소형 어플리케이션, 커넥티비티 기능이 탑재되기 이전 벤츠 차량에서도 장치와 스마트폰을 연동해 벤츠가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주요 기능은 차에 탑승하지 않아도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확인 기능, 주차된 차의 위치나 근처 주차 가능한 공간을 알려주는 모빌리티 기능, 주행·주유 기록을 알려주는 통계 기능, 서비스센터 방문 시기와 자주 가는 서비스센터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 기능 등이 다.

사용 고객의 정보를 검색하거나 문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하기 전 벤츠 코리아 공식 웹사이트에서 '메르세데스 미' 계정을 생성하고 스마트폰에서 'Mercedes me Adapter' 앱을 검색해 설치하면 서비스센터에서 보다 원활한 설치가 가능하다.



메르세데스 미 디지털 어시스턴트

장착 가능 모델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벤츠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벤츠 코리아는 12월 31일까지 이 장치를 무상으로 제공 및 설치해주는 '2019 메르세데스 미 디지털 어시스턴트 캠페인'을 실시한다.

서비스 패키지 상품 구매 고객, 유상 수리 50만원 이상 고객, 사고 수리 고객 등은 캠페인 기간 동안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무상 설치 및 연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벤츠 '더 뉴 GLE', 10월의 차 선정

자동차기자협회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GLE'가 한국 자동차기자협회가 뽑은 10월의 차에 선정됐다.

자동차기자협회 산하 올해의 차 선정 위원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출시된 신차와 부분 변경 모델을 대상으로 ▲외부 디자인 ▲내부 인테리어 ▲제품의 실용성 ▲안전성과 편의사항 ▲상품성과 구매 의향도 등 5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후보 차량을 선발하고, 후보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 임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고의 차량 1대를 선정한다.

신차가 많이 출시됐던 지난달에는 기아자동차 '모하비 더 마스터'와 벤츠 더 뉴 GLE, 한국지엠 쉐보레 '트레버스'가 10월의 차 후보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더 뉴 GLE가 18.4점(25점 만점)을 얻어 최종 선정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 '2020 투싼'

현대차 '2020 투싼' 출시 가격 낮춘 모델 추가

현대자동차는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투싼의 가솔린 모델에 엔트리 트림을 신설하고 고객 선호 사양을 확대 적용해 새모델 출시한다.

'2020 투싼'은 지난해 8월 출시된 3세대 투싼의 부분변경 모델에 가격이 가장 낮은 트림인 '스마트'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최상위 트림인 '프리미엄'을 '인스퍼레이션'으로 바꾸고 선택 사양을 늘렸다.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유광 검정 그릴을 적용해 전면 디자인을 차별화했으며 스마트 파워테일 게이트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트를, 고속도로 주행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등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이밖에 중간 트림에서부터 적용했던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과 LED 주간주행등, 도어 포켓 라이팅을 모든 모델에 기본으로 적용했다.

트림별 판매 가격은 가솔린 1.6T 엔진 기준으로 ▲스마트 2255만원 ▲모던 2391만원 ▲인스퍼레이션 2898만원이며, 디젤 1.6 엔진 선택 시 150만원, 디젤 2.0 엔진 선택 시 199만원이 추가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대형트럭·버스 타이어 무상점검

금호타이어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형트럭·버스를 대상으로 '타이어 무상 점검 서비스 및 안전운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송산포도(평택 방향), 여주(강릉 방향), 신탄진(서울 방향), 청도(부산 방향) 등 전국 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해당 휴게소를 방문하는 트럭, 버스는 운전자들은 금호타이어의 전문가들로부터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 점검, 밸런스 점검 등의 타이어 안전 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타이어 안전 관리 요령 안내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방문 고객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트럭-버스용(TBR) 타이어 'KRA50', 'KRS55', 'KXA10'에 대한 제품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7인승 승용차 0.7kg 소화기 1개, 15인승이상 승합차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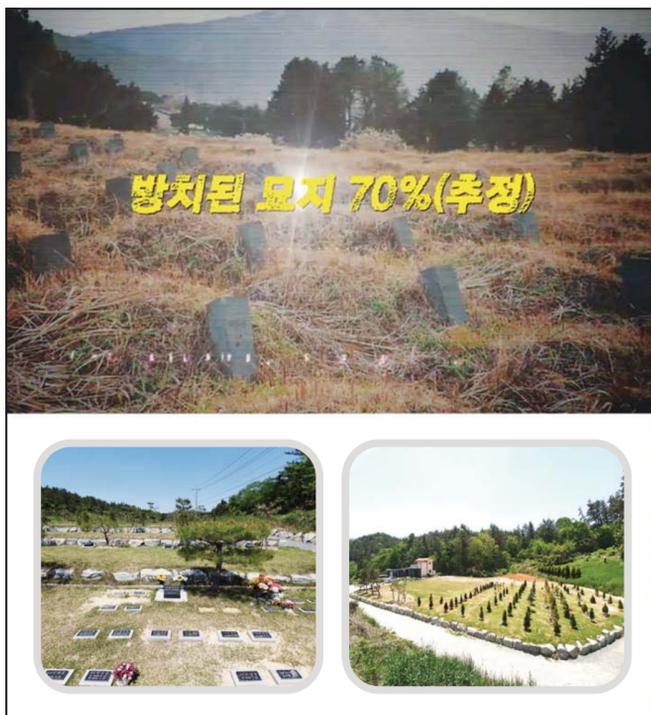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소화기 규격과 개수가 달라진다. 15인승 승합차가 기준이다. 미만이면 0.7kg 소화기 1개, 이상이면 2개를 비치해야 한다.

14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모두 2만 2751건으로, 이로 인한 사상자는 744명이다. 자동차 화재는 2014년 4462건에서 지난해 4570건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차량에 비치하는 소화기는 차종과 탑승 인원에 따라 다르다.

7인승 이상 승용차와 1000cc 미만 경형 승합차는 0.7kg 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의 능력 '1단위'에 해당하는 규격이다.

15인승 이상 승합차는 2단위(1.5kg) 소화기 1개 또는 1단위 소화기 2개를 갖춰야 한다.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는 3단위(3.3kg) 1개와 2단위 1개를 함께 뒤야 하며, 2층짜리 대형 승합차는 이에 더해 위층에 3단위 1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